

서 몇千里의 길을 하루에 달려가니 옛 苦難에 比할 바 아님니다. 앞으로 一週日 이면 「유·텔」에 돌아옵니다. 그곳서 數日 쉬게 될 것입니다. 二月 一日에는 「사 루나-트」에 와서 初轉法輪의 땅과 그곳 博物館을 보았습니다. 印度彫刻中 優品 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實物을 對하오니 理解가 빠른 것 같습니다. 佛教美術이 宗教美術인 만큼 그 發達이 佛蹟과 깊은 關係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곳오니 佛寺는 東向이 原則이었고 如來像은 거의 釋迦이온데 降魔觸地印이 殆半 이었습니다. 우리 佛教의 方向과 新羅佛像의 手印은 確實히 이 곳과 關聯이 있음 을 깨달았습니다. 細部手法에 있어서도 「간다라」뿐 아니라 紀元後四一六世紀 에 있어서의 北部印度에 있어서 彫刻活動이 注目되어야 할 줄을 느꼈습니다. 이 곳서 博物館은 특히 仔細히 보고 있어오며 측장館長들과 이야기하는 수도 있어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地方의 館長은 모두가 專門家는 아닙니다. 〈追記〉 Nagarah의 내리는 밤七時가 되었아온데 驛頭에서 調査를 받고 비자가 없으면 「분비니」의 못간다가에 다시 車를 타고 밤 一〇時 넘어 Palampar의 내리 서 二倍의 車값을 물고 符合室베치에서 하루밤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祇園精舍 址와 舍衛城址를 보고 저녁車로 이 곳 州首都인 Lucknow로 가겠습니다. 二月 六日朝 「파루람驛」에서

雙峰寺通信(完)

申 榮 勳

三、基壇部の 狀態

長臺石部分과 前面階段의 一部分이 露出되어 있었다. 長臺石들은 大部分 攪亂 되고 破損되었으니 數片의 後補物이 混在되어 無秩序하였다.

基壇周圍에 묻힌 흙을 파보니 前面 石階의 全部와 基壇의 全貌가 들어났다. 이것을 平面으로 보면 四隅의 角柱礎石을 起點으로 하여 方形의 構面을 가졌는데 前面에만 階段을 設置하였고 立面으로 보면 角柱礎石下의 넓직한 隆起陽刻線條가 있는 基石을 起點으로 上臺·壁石·下臺石이 秩序整然하게 築石되어 있다. 其中 南, 東兩側面의 左右端에는 混亂이 있었으나 大部分은 狀態良好하다. 階段 단은 층제들이 모두 아래로 처져 있었고 그 중 하나는 缺失되었다.

基壇上面 建物の 周圍는 진흙과 沙土가 섞인 흙으로 덮여 있다.

四、復原의 方案 及 施工

A、基壇：缺失長臺石을 補充하고 上面에 方塊을 깔고 石階를 整理하고 角柱礎石도 四個가 같은 것을 蒐集하여 定礎하였다. 基壇周圍는 넓적이 파헤쳐 本來의 그라운드·라인을 들어내었고 流入을 防止하기 위하여 溝를 쌓기로 알 으막한 측대를 댔습니다. 그 아래로 排水溝를 設備하여 流水의 便宜를 꾀하였습니다.

B、木部：前記한 攪亂部分을 모두 整理하고 後補物과 腐損品一切는 新規材 로 交替하였고 心柱와 春舌는 堅固히 結索하고 補強措置하였다. 積木은 交替된 舊材를 더하여 可能한限 最強을 企圖하였다. 補充材에는 補修年月日을 墨書하였다. 丹青은 模寫採取하였고 補充材에는 古色칠을 하여 周圍와의 同 和를 꾀하였다.

C、屋蓋：蓋板은 大部分 交替하였고 散子는 竹材로 새로우고 積心은 充分히 補填하여 흙을 얇게 깔아 荷重을 가볍게 하였다. 瓦瓦는 前과 同一하게 施工.

基本方案을 以上과 같이 하여 그대로 施工하였는데 三層屋蓋의 架構部分에 對 하여는 論議가 있었다. 解體調査하니 틀림없이 지붕이 사모였다는 心證을 얻어 現像대로나 原形을 찾아 復原할 것이냐의 問題였는데 現狀대로 復原하자는 論이 優勢하였다. 사모지붕이 原形이지만 其以上の 結構——即 相輪部의 形狀을 모르면 以上 것들의 손낼 수 없다는 理由였다. 層前面의 開放部의 後補物은 古格으로 復原하였다.

五、結語

基壇掘土時 前方에서 礎石이 發見되었다. 門址였다고 하는데 全貌를 把握할 수 없는 이상 한부로 發掘하지 못하게 하고 後日 本格的인 調査에 期待하도록 하였다. 이 門의 部材는 大雄殿과 極樂殿·冥府殿(現亡) 등의 補修時 援用되었다고 한다. 其他의 遺構와 事蹟記에 대하여도 言及하고 싶었고 事蹟記와 上樑文과의 比較考案도 試圖하고 싶었으나 紙面關係도 있고 하여 以上으로 簡單히 補修工事經緯를 報告하여 그 責을 면하려 한다. 叱正部分의 敎示를 同人諸位에게 要望하고 事故이 竣工을 보게 한 從事者 諸人士에게 感謝를 드린다.